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

여경아* · 이화자** · 김명희** · 박형숙** · 어용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라든지(교육부, 1999), 교육부 주관으로 중·고등학교 5개 학교를 양성평등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남녀평등교육실천과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신탄중양중학교, 2002).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남녀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교육기회의 제공, 조건 및 방법에 있어 성 차별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남녀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생물학적 성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교육부, 1999).

그러나, 교육현장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관습 속에 남녀 불평등의식은 깊숙이 뿌리박혀 쉽게 청산되지 않고 있는데(이운구, 1993), 전통적인 남선호사상이나 성에 따른 고정 관념적인 성역할의 사회화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성역할 고정 관념에 기반 한 성역할 사회화가 전통적 성역

할 태도 및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키고 남녀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김지윤, 안채순, 2000). 그러므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 고정관념은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역할 태도는 각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가치관 및 의식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고, 성 평등적, 성 차별적 신념을 반영해 준다(김양희, 정경아, 2000). 또한 개인의 성역할 태도 형성은 초기 어린 시절에 자신이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정체감을 가진 뒤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에서 자신의 성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나가게 되며, 일단 형성된 정체감은 성역할 행동의 원인이 된다(Corinne, 1978). 특히 아동기에 형성된 성역할 의식은 성 유형화된 정보나 지식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일생에 걸친 성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문화, 경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우은복, 1998). 또한 아동기는 성역할 태도의 변화가능성을 갖는 최종시기에 해당하며, 이후 성역할 정체감 형성에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데(Carter & Patterson, 1982), 특히 후기학령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6학년시기가 가장 성역할 고정관념이 심한 시기다(김선옥, 1999).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하여 부모나이 학력, 직업, 경제상

* 용당초등학교 보건교사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시간강사

태, 양육태도, 부부간의 조화, 부부간의 역할분담, 가정 분위기 등의 가정환경요인(김수정, 1998)과 또래집단, 학교의 교과과정, 교사들의 교육태도, 매스미디어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숙, 1986). 이들 변인들 중 성역할 발달이 아동 초기에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역할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8). 부모는 아동의 인격형성과 사회화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가정에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김지윤, 안채순, 2000). 부모들 중에서도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양육참여도가 아버지보다 비교적 높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이주옥, 1996). 따라서 아동의 성역할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은 아동이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없애고 올바른 성역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6학년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주요하게 영향 미치는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해 보고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역할 태도를 기르기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올바른 성역할 태도를 위한 남녀평등 교육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한다.
- 2)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파악한다.
- 3)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 1)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 의식이란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해 성에 따른 고정관념을 갖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역행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김양희, 정경아, 2000).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2) 성역할 태도

성 유형화된 행동이나 속성에 대한 태도 중 문화적인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Deaux와 Lewis(1984)의 구성요소모형을 근거로 정순화(1993)가 제작한 32문항으로 구성된 성역할 척도로 측정된 점수이다.

II. 문헌 고찰

성역할 개념은 남성, 여성을 성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가치, 태도, 인성특성의 문화기대에서 오는 행동규범으로서 문화가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Anderson, 1983). 이러한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아동이 그 사회에 적절한 성역할 개념을 획득해 나가는 성 유형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성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규범으로써,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문화일수록 더욱 고정 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보이게 된다(정순화, 이경희, 1997). 따라서 자신이 속한 문화가 각 성에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활동이나 동성의 또래를 아동은 선호하게 되며, 사회가 기대하는 성역할에 따라 자신의 성에 알맞은 기술, 속성, 행동 및 자아개념을 습득해 나가는 것을 성 유형화라고 한다(Bem, 1983).

최근 연구자들은 성 유형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둔 성 도식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성 도식 이론은 성역할 개념의 습득과정을 설명하는 정보처리 이론으로 성 유형화가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성 도식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때, 성 도식화란 성 도식에 근거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부호화하고 조직화하는 전반적인 성향으로써, Bem(1983)은 성 유형화의 기초가 되는 것은 성 도식에 근거해서 정보를 조직하려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Katz(1986)는 아동은 자신의 성 도식과 일치하도록 그들의 세계를 조직하려는 인지적인 성향을 부여받고 있다고 했다. 즉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도식이 성과 관련된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성역할 개념의 발달을 주도하므로(Bem, 1983) 자신의 성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과대 평가하는 반면 불일치하는 정보를 회피하고 과소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성 유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연구들은 대다수가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만을 측정했으나 Deaux와 Lewis(1984)는 보다 복잡한 성역할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요소 모델(Component Model)을 제시하였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에도 성역할의 구성요소는 적어도 직업, 성격특성, 외모, 활동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Deaux & Lewis, 1984) 그 연합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성별과 각 구성요소의 정보가 연합되는 형태로 어떤 사람의 활동, 직업, 성격특성, 외모를 근거로 그 사람의 성별을 추론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의 연합은 구성요소내의 연합인데 타인의 성역할 특성 중에서 한 구성요소를 알면 동일한 구성요소내에서 그 사람의 성역할 특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세 번째 형태의 연합은 구성요소간의 연합인데 한 구성요소의 타인의 성역할 특성을 알면 다른 구성요소내에서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1970년대 초반까지 성역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전통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각 성에 따른 전형적 특성을 지닌 것을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Bem(1983)은 이 견해에 반대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차원상의 상반된 특성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두 개의 직교차원으로 취급하여 개인은 한쪽 성향만 높을 수도 있고 두 성향 모두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남성역할과 여성역할 모두의 역할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성을 심리적 양성성(Psychological Androgyny)이라고 하여 개인의 적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성성이 곧 적응력이라는 이론을 등장시켰다. 이 이론을 토대로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성성 정체감을 가진 아동이 자아개념이 높고 인기가 많으며(도정, 2001), 학교적응이 좋다고 했으며(홍성욱, 1996), 인성특성 중 사려성, 사회성, 지배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명희, 1999)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남정, 2001). 따라서 현대에서 아동에게 바라는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는 양성성적인 성역할태도라 할 수 있다.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정, 학교사회(특히 또래집단)가 등으로 보고되고 있지만(우은복, 1998), 이들 부모 중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어머니는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정, 1998; 이숙, 1986).

그러나 부모세대는 자신의 아동보다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여 왔던 세대로서,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여 남성성, 여성성을 양극개념으로 보고 이들이 상호배제적이고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성질로 파악한(김지윤, 안채순, 2000)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남아선호사상이 뿌리깊이 존재하여 인공임신중절이나 태아성감별 등을 통해 성구성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 남녀인구의 성구성 상태를 말하는 출생성비(출생시 여아 100명당 남아수)가 1980년 105.3에서 1990년에는 116.6으로 보고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홍명선, 1998).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규정하게 되고(박영숙, 김영임, 박연환, 1998), 자신의 아동도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역할을 고정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녀평등주의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과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김양희, 정경아, 2000). 남성과 여성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남녀평등의식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차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한국여성학연구회, 1998).

김지윤과 안채순(2000)은 어머니의 수용과 인정이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고, 민남정(2001)은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인 아동에서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지만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양성적인 성역할 태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아동기에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를 파악하여 아동의 올바른 성역할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시내 초등학교 6개 교육청 별로 각각 1개교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어머니와 동거하는 6학년 아동을 조사한 결과 59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200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동용 설문지는 당해 학교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 을 설명한 뒤 당일 직접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아동과 짝을 이루는 어머니용 설문지는 대상아동을 통해 가정 에 보낸 후 다음날 회수하도록 하였다. 아동용 설문지 는 설문지 당일 학교 결석이나 조퇴 등을 이유로 전체 대상자중 8명이 불참한 582부를 회수하였으며, 어머니 용 설문지는 354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60%를 나타냈 다. 이에 어머니와 아동이 짝을 이루는 설문지 354부 를 선택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302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남녀평등의식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 의식 검사지로 네 개의 하위척도로 가정생활척도 20문 항, 교육생활척도 20문항, 직업생활척도 20문항, 사회 문화생활척도 20문항으로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각 문항은 4점 평정척도이며 '전혀 동의 안함' 1점 부터 '매우 동의함' 4점을 주되 역부호화가 필요한 49 개 문항은 반대로 점수를 주어 전체 척도점수는 4개의 생활 영역별 총점을 합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 평등의식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2)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Deaux와 Lewis(1984)의 구성요소모형을 근거로 정순화(1993)

가 제작한 성역할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1 문항에서 16문항까지는 성별과 구성요소의 연합을, 17 문항에서 24문항까지는 구성요소내의 연합을, 25문항 에서 32문항까지는 구성요소간의 연합으로 총 32문항 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사용된 문항은 4개의 구성요소인 성격특성, 직업, 놀이 및 활동, 외모에서 남성, 여성의 특성을 동일하게 선정하여 1-16문항까지는 구성요소별 로 각각 4개씩 총 16개의 성역할 특성으로 되어있고 17문항-32문항까지는 32개의 특성 가운데 1-16문항까 지에서 사용된 성역할 특성과 중복선정 된 것을 제외하 면 전체척도에는 총 38개의 성역할 특성이 사용되었다. 채점방법은 1-16문항까지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모 두'의 세 가지 응답 중 하나를 선택하고 17-32문항에 서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 다'의 응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측정결과 '남자, 여자 모두',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의 응답범주 에는 0점, '남자', '여자',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응답 범주에는 1점을 주었으며 각 대상의 성역할 태도점수는 0점에서 32점까지의 분포를 갖게 된다. 고정관념화된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동일수록 32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며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 동일수록 0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를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성역할 태도는 평균,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3)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의 관 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아동 의 성역할 태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나이는 39세 이하가 35.8%, 40세 이상이 64.2% 이었고, 학력은 고졸이 69.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는 39.7%,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60.3%로 나타났다. 수입은 101-200만원이 47%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성 선호도에서는 아들 10.3%, 딸 8.6% 아들 딸 모두 좋다가 81.1%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N=302)

특성	구분	실수	%
나이	39세이하	108	35.8
	40세이상	194	64.2
학력	중졸	33	10.9
	고졸	210	69.5
	대졸이상	59	19.5
직업	유	120	39.7
	무	182	60.3
수입	100만원이하	75	24.8
	101-200만원	142	47.0
	201만원이상	85	28.2
자녀 성 선호도	아들	31	10.3
	딸	26	8.6
	아들, 딸	245	81.1

2.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

1)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 평균점수는 229.14(SD=26.58)점이며, 하위영역별로는 가정생활영역에서 59.80(SD=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생활영역은 58.23(SD=8.50)점, 직업생활영역은 57.78(SD=8.03), 사회문화생활영역은 53.32(SD=6.5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 정도 (N=302)

하위영역	문항수	평균±표준편차
가정생활	20	59.80± 7.04
교육생활	20	58.23± 8.50
직업생활	20	57.78± 8.03
사회문화생활	20	53.32± 6.58
전체	80	229.14±26.58

2) 남녀평등의식 척도에서의 문항별 평균점수

남녀평등의식 척도 80문항 중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 순으로 10문항을 나열해보면 <표 3>과 같고, 낮은 문항 순으로 10문항을 나열해 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점수가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영역 6문항, 사회문화생활 2문항, 직업생활 2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생활영역은 한 문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내

용을 살펴보면 가정생활영역에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3.52±0.68), “폐백은 양가 부모님께 함께 드려야 한다”(3.51±0.72),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3.41±0.68), “결혼한 남자는 처가쪽에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3.39±0.72),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3.38±1.36), “부부는 결혼 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3.34±0.67) 등이었다. 사회문화생활영역에는 “컴퓨터 통신에 성희롱이나 성 차별적인 내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3.43±0.78), “성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3.32±0.93)이었고, 직업생활영역에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3.42±0.71),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3.37±0.70)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수가 낮은 문항으로는 사회문화생활 7문항, 직업생활 1문항, 교육생활 2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영역은 한 문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는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2.14±0.89)”, “성폭력이나 강간은 피해를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2.20±0.89)”,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가 어렵다(2.27±0.81)”,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2.28±0.92)”, “광고에서 여성의 몸을 선정적으로 그리지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이지 여성차별이 아니다(2.37±0.80)”,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2.39±0.94)”, “여자라고 숨어서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2.38±1.04)”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영역으로는 “여자는 자녀와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업활동을 해야 한다”(2.25±0.95)로 나타났고, 교육생활영역에서는 “학교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안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2.28±0.93), “암기과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한다”(2.31±0.87)이었다.

3) 아동의 성역할 태도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아동의 성역할 태도 평균점수는 23.09±4.84점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평균 23.76±4.58점으로 여학생의 22.59±4.98점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6

<표 3> 남녀평등의식 척도에서 문항별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난 10문항

영역	문항 내용	평균±표준편차
가정생활 (6문항)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3.53±.68
	폐백은 양가 부모님께 함께 드려야 한다.	3.51±.72
	이혼시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41±.68
	결혼한 남자는 처가쪽의 대소사를 자기 집과 똑같이 챙겨야 한다.	3.39±.72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38±1.36
	부부는 결혼중 얻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3.34±.67
사회문화생활 (2문항)	컴퓨터 통신에 성희롱이나 성 차별적인 내용은 금지시켜야 한다.	3.43±.78
	성을 파는 사람은 물론 사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3.32±.93
직업생활 (2문항)	직장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42±.71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직원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	3.37±.70

<표 4> 남녀평등의식척도에서 문항별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난 10문항

영역	문항내용	평균±표준편차
사회문화 생활 (7문항)	여자의 욕설이나 욕담패설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2.14±.89
	성폭력, 강간 등을 당한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에 원인이 있다	2.20±.89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2.27±.81
	남자는 될 수 있으면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2.28±.92
	광고에서 선정적인 여성의 모습은 상품을 팔기 위함이지 여성차별이 아니다.	2.37±.80
	남자들의 우정은 여자들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	2.39±.94
	여자라고 숨어서 담배를 피울 필요가 없다	2.38±1.04
직업생활 (1문항)	자녀와 가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성의 직업활동 허용	2.25±.95
교육생활 (2문항)	여학생에게 암전한 행동이나 옷차림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2.28±.93
	암과 과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잘한다.	2.31±.87

<표 5> 아동의 성역할 태도

하위영역	문항수	전체 (N=302)		남학생 (N=134)	여학생 (N=168)	t	P
		M±SD	M±SD	M±SD	M±SD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16	11.67±3.05	12.08±2.88	11.35±3.15	2.09	.037	
구성요소내 연합	8	5.92±1.47	6.03±1.50	5.84±1.46	1.11	.267	
구성요소간 연합	8	5.49±1.86	5.64±1.92	5.36±1.81	1.26	.207	
전체	32	23.09±4.84	23.76±4.58	22.59±4.98	2.16	.032	

p=.032). 하위영역별로 보면 성별과 구성요소연합에서 남학생, 여학생 각각 12.08±2.88점, 11.35±3.15점으로 남학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9 p=.037). 하지만 구성요소내 연합, 구성요소간 연합에서는 통계적으로 남녀학생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3.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간의 관계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314, p<.001), 하부요인 각각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교

육생활영역과 성역할 태도(r=-.302, p<.001), 직업생활영역과 성역할 태도(r=-.306, p<.001)가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차이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학력, 수입, 자녀성 선호도로 나타났고,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는 학력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을 살펴보면, 학력에서는 중졸이 224.09(SD=25.66)점, 고졸은 226.96(SD=25.08)점, 대

<표 6>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관계

성역할 태도	남녀평등의식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전체
성별과 구성요소 연합	-.171	-.236	-.238	-.204	-.243
구성요소내 연합	-.173	-.217	-.246	-.204	-.240
구성요소간 연합	-.186	-.227	-.210	-.170	-.228
전체	-.233	-.302***	-.306***	-.256	-.314***

(p <.001 *** p <.01 **)

<표 7>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차이검정 (N=302)

특성	구분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			아동의 성역할 태도		
		M±SD	t or F	P	M±SD	t or F	P
나이	39세이하	228.25±27.50	-.435	.664	23.21±5.41	.321	.748
	40세이상	229.64±26.12			23.02±4.50		
학력	중졸	224.09±25.66	6.184	.002*	24.36±4.88	3.113	.046*
	고졸	226.96±25.08			23.23±4.70		
	대졸이상	239.73±29.89			21.88±5.14		
직업	유	230.22±23.51	.592	.554	22.94±4.99	-.439	.661
	무	228.43±28.48			23.19±4.75		
수입	100만원이하	224.29±25.96	4.538	.011*	23.30±4.80	2.102	.136
	101-200만원	227.53±27.31			23.50±4.45		
	201만원이상	236.11±24.63			22.21±5.41		

졸이상은 239.73(SD=29.89)점으로 어머니의 학력 정도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었고(F=6.18, p<.001), 수입에서는 100만원이하가 224.29 (SD=25.96)점, 101-200만원이 227.53 (SD=27.31)점, 201만원이상이 236.11 (SD=24.63)점으로 수입 정도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에 차이가 있었다(F=4.538, p=.011). 자녀의 성 선호도에서는 딸을 선호하는 것이 238.54(SD=25.02)점,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 214.03(SD=18.72)점, 아들, 딸 모두를 선호하는 것이 230.06(SD=26.93)점으로 딸을 선호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선호하는 어머니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F=7.05, p=.00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성역할 태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난 특성은 학력이었는데 중졸에서 24.36(SD=4.88)점, 고졸은 23.23(SD=4.70)점, 대졸이상은 21.88(SD=5.14)점으로 어머니의 학력 정도에 따라 아동의 성역할 태도의 유통성에 차이가 있었다(F=3.11 p=.046).

V. 논 의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6학년 아동 302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올바른 아동의 성

역할 태도를 정립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 점수는 229.14(SD=26.5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가정생활영역에서는 59.80(SD=7.04)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평등적인 태도를 보였고, 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는 53.32(SD=6.58)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녀평등의식 점수인 237.14 (SD=28.69)점과 여성운동가가 291.6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연구에서는 전국 4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는 P시 한 곳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에 따른 차이로 사료되며, 가정생활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은 본 연구대상자가 어머니로서 어느 영역보다 가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이 더욱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 남녀평등의식척도 80 문항 중 평균점수가 높은 10문항 순에서 6문항이 가정생활영역에 속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이들 문항들은 가정내 권력관계 및 제도에 대한 내용들로써 다른 문항에 비해 평등적인 사고를 보여준 반면 낮은 평균점수를 보인 10문항들은 7문항이 사회문화생활영역이고 교육생활영역 2문항, 직업생활영역 1문항으로써, 이들

내용은 사회문화영역에서의 남녀의 능력과 속성, 역할과 행동기준, 권한과 권력관계, 성차별과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내용들로써 다른 문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 계획시 사회문화생활영역에서 남녀평등의식의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동의 성역할 태도점수는 평균 23.76점으로 나타났으며 남녀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 23.76점으로 여학생 22.59점으로 남학생이 보다 성역할 태도가 고정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순화와 이경희(1997)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현수(1999)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역할 태도가 더 고정 관념적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정순화와 이경희(1997)의 연구에서도 말했듯이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압력을 덜 받으므로 보다 융통성 있는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성역할 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여학생의 성역할 태도는 융통성이 있으나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는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 = -.314$, $p < .001$),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역할 태도는 융통성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남녀평등의식의 하위 영역인 교육생활영역과 직업생활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교육생활영역: $r = .302$, $p < .001$; 직업생활영역: $r = -.306$, $p < .001$), 이는 어머니의 교육생활과 직업생활에 대한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녀평등의식과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의 차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아들 선호보다 딸을 선호하는 어머니에게서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남녀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학력 어머니에 비해 저학력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